

부활 제 3 주일

기도서 285 면(B해)  
 제1독서 : 사도 3, 13-15, 17-19  
 제2독서 : 1 요한 2, 1-5  
 복 음 : 루 가 24, 35-48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 없이 나다!  
 자, 먼저 보아라”  
 (루가 24, 39)

□ 강 론



## 부활을 외치는 우리

이 수 현 신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의 근거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고백의 깊은 내용이다.

예수의 부활은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또 생명이시며 정의의 표본이신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짧고 강한 삶, 즉 짧지만 짧은 생애와 그리고 그로인하여 받아야 했던 온갖 수모와 비난과 증오, 고문과 죽음 때문에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승리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 이후의 그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외롭지만, 의로운 죽음과 단 3일만에 뒤따라 일어난 부활의 깊은 뜻을 가슴속에 교욱 간직하고 살아가리라고 본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현실적으로 아주 적절한 교훈적 사건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모두가 순수한 진리 안에서 살고, 이리저리 눈치도 보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그저 묵묵히만 보고서 출몰 끝은 길을 달리는 경마장의 뛰는 말들 같이 「직선적(直線的) 삶」을 살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지저분하고 자질구레한 사행(思行), 즉 적당주의적인 방향인 누이종교 매부종아,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사행은 조속히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행은 오늘날 일반 사회풍조로서 건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독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불행한 것은 이러한 풍조가 벌써 우리 믿음의 사회안에도 깊숙히 스며들여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론대에서, 혹은 어느 집회에서 “예수의 죽음과 신비, 진리와 정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 등등을 18번처럼 외쳐대는 우리이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행동에는 것처럼 미흡하기 그지없고, 그저 제발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안일무사하고 싶은 심정에 매어 있거나, 전혀 관심없어하는 태도를 보이는 때가 있으니, 이에 대한 민중의 비판과 비난을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단말인가!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이다. “연극의 대사(臺詞)는 잘도 외우는 광대놀음(쇼) 잘한다”라고. 이 민중의 소리가 커지면 「이 땅의 교회」는 의(義)의 실천자들로부터 돌림받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아픔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부활의 참뜻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설명) 표현해야 할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내 행동의 부활까지 기필코 이룩하여 움푹진뚝했던, 그리고 이리영기고 저리영기고 했던 삶의 길을 쭉 펴서 대답하고 기쁘게 걸어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흠탕물이 되지 말고 맑고 깨끗한 물로 계속 걸려져 나아가야만이 부활을 외치는 우리의 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  
 (주현동 주임신부)



## 마음의 나눔

—대화의 시대에

바야흐로 한국의 정치는 대화의 시대에 접어든 모양이다. 힘으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대통령은 대화로 모든 것을 풀겠다고 말했다. 민정당 대표도 관훈클럽이 초청한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일곱번이나 대화를 강조하며 정치는 물흐르듯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당 대표 역시 자신은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 밝히며 극한대결이나 격론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대화야 꼭 필요하다. 그런데 대화란 무엇인가? 우리말 사전이 밝히는 낱말풀이는 ‘서로 마주 대하여 직접 이야기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상의 설명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서로 마주 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항상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로 주고 받는 말마디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화의 참뜻은 ‘마음과 마음의 나눔’에서만 찾을 수 있다.

대화의 황금률은 ‘사랑안에서 진리를 찾으며 공동선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나누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퍼부어대고 만 것이다. 나누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읽기보다는 제 주장만을 상대방에 이해시키려 들었다. 서로가 그러한 자세로 대화를 한답시고 덤벼들었으니 될 것이 무엇인가. 제 마음의 문은 열지 않고 상대방의 문만 열으라고 강요하고 제 팔만 하고 만 셈이다. 정치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흑백논리를 쫓피우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기 십상이다. 이제부터라도 참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마음의 나눔은 집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는 법과도 꼭 필요하다.

## 숲 정 이 산책



김강하심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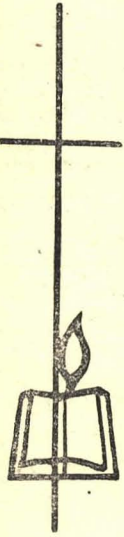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요한20:28

요한 복음은 사도 토마에 대해서 3회 정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그의 성격과 신앙에 대한 것이다(요한 11:16, 14:5, 20:24~29).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의 상헌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이란 타인의 증언을 믿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것이다. 생각해 보면, 토마만이 불신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부활을 보기 전에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요한 20:1~20). 그런데 실제 토마는 손을 상헌에 넣어 보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20:28)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토마가 예수의 하느님다운 모습, 무한한 사랑의 눈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일러준다.

토마의 이 고백은 복음서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예수를 하느님으로 고백한 내용이다.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에서의 베드로 고백은 이 고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불신의 토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토마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는 우울한 회의자였다. 그는 비판론자였다. 회의론자에게는 언제나 무슨 설명이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토마가 일단 신앙고백을 하게 되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자기 복음의 결론부분에 이 내용을 삽입했다는 것이다.

「보지 못한 물(物)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신앙이다. 토마는 보고 믿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더 행복하다. 부활의 주(主)는 하시, 하처를 막론하고, 우리 「마음의 눈」에 보다 큰 영광의 모습으로 발현하시는 것이다.



### \*\*\*\* J.O.C 회원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

지난 4월 10일 군산 지방법원에서는 J.O.C 회원인 김 덕순(아베스)양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건 선고가 있었다.

판사의 선고 내용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구류 17일.

김 덕순양은 J.O.C 회원으로서 이리 태창메리야스에서 민주노조를 위해 노력하다 정부의 반 노동자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쫓겨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의해 복직은 커녕 다른 회사에도 취업이 거부되어 왔었다. 그후 '83년말 이리 아세아스와니(주)에 어렵게 취업이 되었으나 또다시 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갖은 탄압과 심지어는 짱패에게 사주하여 강간을 기도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김 덕순양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자 '동료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정부의 노동자 탄압정책을 폭로하였다. 그러던 중 84년 11월 20일 이리 원광대학생들의 초청에 의해 원광대에서 노동자 탄압 사례를 발표한 직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시에 회부되어 구류 17일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김 덕순양은 자기의 정당한 입장을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으

며 유치기간 10일 동안은 이리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후 지난 2월 6일 정식재판이 시작되어 무려 5번의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사법부의 독립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즉,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이 노출될까 두려워 김 덕순양 혼자만 특별재판처럼 진행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기 위해 학생선동과 사회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넣었다가 검사가 그것을 변경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재판은 피고의 최후진술마저 빼앗은 졸속재판이었다.

자기의 온 몸을 노동계에 투신하여 열악한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한 한 근로자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실정법과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슬픈 현실을 되돌아 보게 된다. 오송회 사건도 바로 이러한 경우와 같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고 행정부의 증속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법이 불신받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행위에 대한 판가름을 법 이외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현실을 주시하면서 김 길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를 했으며 차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

오수분류 설계·시공·감리

**유성정화조**

f.R.P, P.E 정화조  
생산판매

Water Tank 생산판매  
농촌 삼조식 생산판매

전주시 전라중학교 앞

☎ 74-4880

김 세 인(이냐시오)

**군산 태 광 약 국**

☎ ②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미영갈라현상소**

갈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2씨스텔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651-9286

전주시 중양동 3가 3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 □ 배움의 열기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출발한 교구 신앙대학의 열기가 대단하다.

교구 교육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앙대학은 지난 3월 18일, 그 입학식을 갖고 계획된 1학기 교육이 한창인데, 80명이라는 많은 수강생들이 배움에 열심이다.

6월로써 마쳐지는 제1학기 강의로 윤리학(박정일 주교 담당), 교회사(김진소 신부 담당), 성서입문(김준호 신부 담당) 세 과목의 정규과정 외에 불교학, 유교학, 철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요한복음, 모세5경, 그리스도론 등의 특강을 가지게 된다. 특별히 의부 초청강사를 통해 실시되는 이 특강은 수강자 외에 일반인에게도 공개강좌로 실시되는 데 일차적으로 오는 4월 28일 중앙신협 강당(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있을 유교학(강사-수원 가톨릭대학 교수 최기복 신부)의 공개강좌에 일반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질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더욱 깊이하려는 이 열기 높은 의지가 교구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 쪽을 캐고, 떡을 빚어,

군산 옥봉본당, (주임, 이재후 신부)-낙성식 한달을 앞두고(5월 6일 예정) 본당으로 썬의 새 면모를 위한 마무리 노력이 눈물겹다.

월명본당에서부터 분리. 지난 84년 9월, 기공식에 이어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새 성전 건립과 본당으로써의 자립을 위해 모든 신자들이 총동원되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새 성전 건립기금을 마련키 위해 해보지 않은 장사(?)가 없었다고, 이 신부님은 씩스레이 웃으신다.

그런중에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잊지 말자고-, 부녀회에서 썬캐기 운동을 벌렸단다. 모든 부녀회원들이 자진해서 썬을 캐고 떡을 빚어 시내 각 본당에 판매, 그 이익금을 불우한 이웃과 본당에 보태기도-

은갓 정성의 노력에 좋은 보람을 빌면서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고심하는 옥봉이네 집을 우리가 조금 도울 수 있다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 아프다.

### □ 숲정이 명상

#### 새롭게 살아가기로

옛날 어느 숲 속에 토끼들이 살고 있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당하기만 해서 늘 불안하고 슬프던 토끼들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가까운 연못에 가서 모두 빠져 죽어버리기로 했다. 긴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토끼들은 서둘러 연못에 당도했다. 그때, 막 잠이 깨 그곳 개구리들은 갑작스런 토끼떼에 놀라 너도나도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 숨는 것이었다. 토끼들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새롭게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헛되고 잘 안돼?!”

나를 나 자신 아닌 남과 비교하여 내가 남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

“우리집은 언제나 좀 남과 같이 멍멍거리고 살아 볼까?”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집, 우리식구가 못마땅했던 지난날이 뒤우쳐진다.

“저 아가씨는 왜 좀 더 친절할 수 없을까?”

설렁설렁 목수기도를 하면서 틈틈이 불친절한 피로에 지친 버스 안내양을 미워한 일도 낫부끄럽다.

부활의 봄날씨에 새 잎이 돋아나고 살아 있는 모든 목숨들이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텅 빈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느님이 우리것이라, 기쁘게 새로 시작해 본다.

## 요십이 (611) 김병오



### 토탈패션 바로방

\*숙녀 의류·악세사리  
교우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경 자(소피아)  
전주백화점,  
진선미꽃집 건너편

###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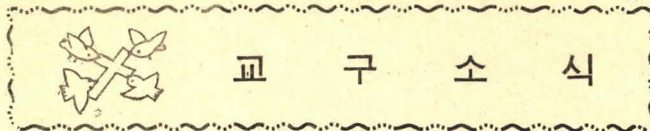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④ 8653

MISUNG 美米星 성  
全州 코야백화점 1층  
미성핸드백 대리점  
\*취급품목  
핸드백·벨트·지갑·기타  
피혁소품  
☎ 교환 72-0551-5  
72-0561-5  
김혜걸(글라라)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센타  
전주주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베드로

주 단·포 목  
흥수(회갑)웃감  
맞춤이불·카텐지  
보드룬이불 전주특약점 } ◆년중 정기세일◆  
3월 25일~4월 25일  
서울주단  
☎ ② 0453 ③ 15095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축! 영명**: 21일-김윤섭(안셀모) 신부님 영명축일

1. **견진**: 순정이 천주교회 견진성사, 21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
  2. **군산·옥구지역(3지구) 아치에스**: 21일 오후 2시, 오룡동 천주교회
  3. **오수공소 축성**: 임실본당 소속 오수공소 축성식, 21일 오후 3시 오수공소, 주례-박정일 주교
  4. **4월 꼬미씨움회의**: 21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회의실,  
대상-각 꾸리아간부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5. **본당 사무장 및 사무원 수련회**: 24일 오전 9시~25일 오후 6시, 회비-20,000원(본당부담)  
24일 오전 9시까지 가톨릭센터에 집결(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6. **성소주일 행사: 광주 가톨릭대학 방문 견학 및 1일피정**  
일시-4월 28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출발, 집결시간-오전 9시, 집결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중·고·대·일반 성소모임 회원 및 관심있는 남학생  
접수마감-4월 25일까지(차량관계로 선착순 60명),  
접수처-교육국(☎ 0041~3) 전화 또는 엽서 이용 바랍니다. 지참물-성서·성가집·필기도구, 회비-2천원
  7. **신앙대학 「유교」 특강**: 강사-최기복 신부(수원 가톨릭대학교수)  
일시-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중앙 신용협동조합 강당, 수강료-2,000원(점심 각자 해결)
  8. **여자 수도 성소 피정**: 주례-나를 부르소서, 일시-5월 11일~12일(토요일 오후 4시 등록),  
대상-여고 1년이상·대·일반여성,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4,000원,  
지참물-세면도구·필기도구·미사도구(성경)
- ※ **씨튼 카리마스 수녀회 성소 피정 안내**: 저희 씨튼 카리마스 수녀회에서는 성소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매월 성소자를 위한 피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대상-고등학교 졸업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여성,  
장소-전남 광산군 서창면 금호4리 씨튼 카리마스 수련원(광주에 위치) 전화-광주 34-8766,  
일시-매월 네째주 오전 10시~오후 5시, 회비-1,500원

전주시 중노송동 2가 361-3  
주임신부 김 용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노 송 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⑥ 0 9 6 9  
수 녀 원 ③ 7 0 3 2  
사 무 실 ③ 7 0 3 2

- ◎ **미사시간 안내**: 월-오전 6시,  
화-오전 10시30분·오후 7시,  
수·금-오전 6시·오후 7시,  
목-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4시,  
일-오전 6시·10시30분·오후 3시·6시
- ◎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직장인-매주(화) 저녁 8시  
부녀반-매주(수) 오전 10시
- 1. **토끼저금통 봉헌**: 다음주일은 성소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제양성을 위해 2개월동안 정성을 모은  
저금통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신학생들 양성을 위해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2. **혈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3. **유아영세식**: 27일 오후 3시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 4. **사도회 상임위원회**: 다음주 오전 9시  
사도회 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5.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특히 84년도 교무금을 못내신 가정은 이번주내에 완  
납합시다
- 6. **공소회장단 회의**: 23일 오후 3시, 신교리 공소에서  
회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7. **금주의 전례담당**: 제3조, 차주는 제4조가 담당입니  
다, 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합시다
- 8. **축! 결혼미사**: 오늘 12시(정오)  
신랑-김덕민(요왕)군, 신부-정덕주양  
오늘 오후 1시30분  
신랑-김문기(바오로)군, 신부-김명희양
- 9. **아파트성당 소식**  
①요셉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탄영세반 예비자 모집: 5월 5일까지 신청하세요  
직장인반-매주(일) 오전 9시30분, 부녀반-매주  
(수) 오전 10시, 중·고등부반-매주(토) 오후 5시  
③주일 특전미사: 매주(토) 저녁 6시  
④중·고생 모임: 매주(토) 오후 5시  
⑤첫영성체 교리: 5월부터 교리합니다  
대상-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  
신청 마감-4월말까지 신청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430, 213원 **교무금**: 332, 000원  
**신축기금**: 135, 000원